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67.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2014. 04. 13.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묘하게 생긴 짐승에 대한 계시를 거의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3:8~10]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죽임을 당한 어린양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 중에 어는 것을 따를 것인가를 우리들이 잘 판단하고 성경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권고로 말을 마쳤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읽음 말씀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을 온 세상이 따르는데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답: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2.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을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지요? 즉 창세로부터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답: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헬라어 문장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구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지요.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양이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역은 생명책에 이름 적히는 것이 창세 이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문은 이 두 번역이 다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를 분별해서 성경 전체의 사상에 일치하는 문장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창세함으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고 번역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창세함

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이 범죄하는 그때 곧 결정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롬16:25,26]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26 이제는 나타 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 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딤후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이라.

[딤후1:2]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 신 것인데.

[벧전1:19,20]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0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구절들은 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 창세전부터 알려진 것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님의 희생과 관련하여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또 실상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 다.(창3:21) 가죽은 동물이 죽어야 나옵니다. 가죽만 따로 창조하지 않았습시다. 여기 가죽옷 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동물이 죽었다는 것은 나타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또한 구원의 복음의 상징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구주가 희생되고 그분의 생명의 옷, 곧 의의 옷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입히실 것을 표상합니다. 이때 예수는 의미상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실제 죽으신 것이 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는 의미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함 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의 희생은 예정되어 있지만, 생명 책에 이름이 기록될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3.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 그것은 간단하지요. 그 책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왜 그런 이름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죽은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요일5:11,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 다. 예수님이 생명이 된 사람들은 이 상처받았다가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조

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 성경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그렇게 말이 됩니다. 마7:21~23을 읽어봅시다.

[마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길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참으로 그의 생명이 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그의 생명이 된 사람들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지요.

5. 그 말씀이 좀 애매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으면 참으로 억울하다고 할 것 같은데요?

답: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오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말씀을 봅시다.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들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고 예수께서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권능을 행해도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한

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교리와 신조로 가르치고 믿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 안에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업도 하고 주장도 합니다. 예수 이름도 용하는 것이지요. 불법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었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를 다른 예수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는 예수인데 진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고후11: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예수를 다른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가르치지 않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교단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예수는 다른 예수이고 그런 예수를 믿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다고 주장할 때 불법을 행한 자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짐승의 가르침을 받고 따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경의 예수님이 생명이 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결코 경배하지 않습니다.

6. 그런 설명은 이 짐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세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조직으로 일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사를 계시록은 사로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3:10에 그렇게 기록되었지요.

[계13: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사로잡은 자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상된 그런 교권국을 가리킵니다. 그런 그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말한 대로 1798년에 피우스6세가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신조를 거절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것처럼 그들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많은 사람이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하여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만 이 짐승은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낫게 되었지요. 이런 것에도 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태초부터 거짓말한 존재인데요, 속이는 데는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최고의 고수이지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라고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주셨습니다.(요 8:44) 그래서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다 같은 아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경고합니다.

[딤후3:13,14]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도 되고 속는 자도 된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를 다시 좀 읽어봅시다.

[딤후3:13~17]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네가 어려서 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고 당부하지요. 그리고 성경을 누구에게 배우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암시를 합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지만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기능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바르고, 의로 교육하고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감하지 않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 순복할 때 예수께서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는 성경을 사용하면 서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이지요.

7. 그러면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예외 없이 이 조합짐승으로 표상된 나라에 굴복하고 경배하는데 참가할까요?

답: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지요. 과거 역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에 미루어 이것도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8.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교회에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 또 무신론자들, 다른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모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들이 다 그렇게 이 나라에 굴복하고 경배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답: 당연하지요.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배후가 용이잖아요. 용이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주었지요. 용은 사단이고 이 세상 신입니다. 다른 예수 행세를 하든지 용으로 행세를 하든지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의 종교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용과 짐승이 연합해서 이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거기에 계13:11에 등장하는 다른 한 짐승이 연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침내 묘한 통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어찌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 대하여 통일된 의견으로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12장 마지막 구절에 용이 바다모래 위에 서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13장은 이때를 위하여 용이 세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9.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엄청나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에 대하여서는 14:12에도 똑 같은 말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14:12에는 성도가 누구인지 밝혔는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12:17과 비슷한데요, 12:17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용이 싸울 것이라고 했는데, 14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성도가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1:19에서 하늘 성전이 열리며 보여준 언약궤 안에 있는 바로 그 십계명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용과 짐승과 온 세상이 연합하여 핍박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굳게 의지하는 중에 대단한 인내로 이 시대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때가 이르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10. 말씀을 들으니 아직 그런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어째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군요. 지난 시간과 오늘 나는 말씀을 종합하여 간단하게 정리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답: 그렇게 해보지요. 13장 1~10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는 계시적 표상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17과 23절에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나라들은 왕국입니다. 잠깐 그 구절을 읽고 이야기합니다.

[단7:17]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단7: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숩뜨릴 것이며.

이 말씀에서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네 마리 맹수,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넷째 짐승을 땅의 넷째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세 짐승도 땅의 세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은 17절에 왕으로 대표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입니다. 계13장에 이 네 마리 짐승을 조합한 이 묘한 짐승도 왕국을 표상합니다. 그 왕국은 용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훼방하고 참람되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는 경배를 받으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국가입니다. 종교인데 국가의 체제를 갖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권세를 함께 가지고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12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기 영토만이 아니고 세상의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는 중에 그 권세가 잠시 동안 꺾여서 죽게 될 것 같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따릅니다. 그런 나라가 용의 세력을 업고 세상에서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행세하는데 교회만이 아니고 왕국입니다. 즉 정교가 일치되어 있는 왕국입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 순복할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는데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시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죽게 된 상처를 입은 것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통치로 교권이 정지되었던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 상처가 나온 것이 1921년 라테란 조약으로 교권 국의 영토가 확정되고 권세가 회복되며 1984년 미국이 국가로서 교권국을 인정하여 대사를 파견하자 여러 나라들이 대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건강한 상태를 드러내고 온 세상이 따르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 권세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기록된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용과 짐승과 온 세상이 연합하여 싸움을 걸어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서 있으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것이 됩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로 굳게 살기를 바랍니다.

11.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성경을 기록한 대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여 성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 알도록 계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쳐주신 말씀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확인하고 확신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로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